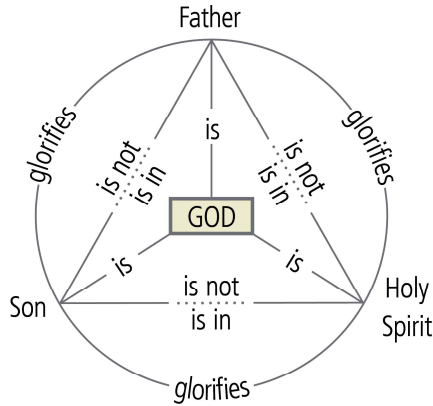


개혁주의 삼위일체 교리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6문답은 “하나님께는 세 인격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데 이 셋은 본체(本體)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한(一體) 하나님이다.”라고 하였다.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은 다음과 같은 요점들을 포함한다.

1. 한 하나님

첫째,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신구약 성경은 온 세상에 오직 한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거 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출 20:3)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신 6:4)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으며 땅을 베풀었고”(사 44:24)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전 8:6)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5문답은 “한 분 이상의 하나님들이 계신가?”라는 질문에 대해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답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그의 본체(本體)의 단일성(單一性)이라고 이해된다. 하나님의 본체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과 활동들의 공통적 주체가 되는 객관적 존재를 의미한다. 본체(本體, substance)와 본질(本質, essence)은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지는 것 같다.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비교적 추상적 개념이며 본체는 그러한 본질을 가진 구체적 존재를 가리키는 맛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본체에 있어서 하나이시며, 물론 그 본질에 있어서도 하나이시다.

초대교회의 니케아 신조는 “성부와 성자는 같은 본질을 가지신다.”고 진술하였다. 찰스 핫지(Charles Hodge, 1797-1878)는 이렇게 말했다. “니케아 신조(Nicene Creed, 325)의 ‘같은 본질의’(호모우시오스, homo-ousios)라는 말은 단지 종류적 동일성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수적 동일성(numerical identity)도 의미하는 것이며, 만일 호모-우시오스(homo-ousios)가 종류적 동일성의 의미로 해석된다면 니케아 신조는 삼신론(三神論, Tritheism)을 가르칠 것이다.”

아타나시우스 신조(The Athanasian Creed)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시고 아들께서는 영원하시고 성령께서는 영원하시다. 그러나 그들은 세 영원 자들이 아니고 한 영원자이시다. (중략)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시고 아들께서는 전능하시고 성령께서는 전능하시다. 그러나 그들은 세 전능자들이 아니고 한 전능자이시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아들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들은 세 하나님들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2. 세 인격

둘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께서 존재하시며 이 삼위(三位, person) 혹은 세 인격(人格, person)은 서로 구별되신다. 인격이란 자의식(自意識)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는 이성적 존재를 가리킨다. 하나님께 있는 세 인격은 서로 구별되는 세 존재이다. 개혁자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내가 의미하는 인격은 신적 본체 안의 한 실존

즉 다른 둘과 관계되어 있으나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는 특성들로 구별되는 실존이다.”라고 말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항은 이렇게 진술 한다: “한 하나님 안에 한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가진 세 인격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서 나지도 나오지도 않으시고 아들께서는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성령께서는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구별된 세 인격이시다. 마태복음 3:16,17은 이것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증거 한다. 또 요한복음 14:16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본체는 동일하게 세 인격들에 공통적이며 이런 의미에서 그 셋은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는 인격적 특성에 의해 구별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이런 의미에서 그 셋은 셋이다. 그러나 그 세 인격은 하나님의 본체와 나란히 있는 어떤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본체의 존재 양식이다. 아버지께서는 참 하나님이지요 아들께서도 참 하나님이지요 성령께서도 참 하나님이시다. 각 인격은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하고 만일 두 인격을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보다 더 크지 않으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 인격에 하나님의 본체 전체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 역사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을 부정한 자들이 있었으나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들의 사상을 ‘사벨리우스주’(Sabellianism)의 혹은 ‘양태론적 단일신론’(樣態論的 單一神論, Modalism)이라고 불리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로마 가톨릭의 소위 ‘성부수난설’(聖父受難說, Patripassionism)은 이런 사상에서 나온 오류이었다.

(1) 아버지(聖父, Father)

아버지께서는 세 인격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단순히 하나님으로 표현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13)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전 8:6)

그러나 그는 아들과 관계하여 아버지로 언급된다. ‘아버지의 독생자’(요 1:14)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요 5:17)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요 8:54)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요 17:2)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엡 1:3)

(2) 아들(聖子, Son)

아들께서는 아버지와 관계에서 이해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신성(神性)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그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될 때에라도 그것은 그의 신성을 증거 한다. 아들은 아버지와 존재적 관계에서 아들이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롬 8:3)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갈 4:4)

특히 ‘독생자’(獨生子, 모노게네스 monogenhv)라는 명칭은(요 1:14,18, 3:16,18, 요 일 4:9) 비록 그것이 신약성경에서 사람의 외아들이나 외동딸에게도 사용되었지만(눅 7:12, 8:42, 9:38) 아버지와 아들의 독특한 관계를 나타낸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증거 하는 다른 여러 구절들도 아버지와 아들의 독특한 관계를 암시한다.(마 11:27, 요 5:18-25 등)

신성(神性)은 인격성을 내포하고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인격적 관계에서 가장 잘 이해된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의 ‘말씀’(로고스 Logos)은 인격성을 가진 신적 존재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가장 잘 이해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아

들께서도 참된 신성을 가진 자로 이해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아들의 출생은 영원하다고 이해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항은 “아들께서는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시고”라고 진술한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5)라고 기도하셨다. ‘창세 전’은 시간 세계 이전이며 영원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물론 영원 전의 출생이라는 생각은 하나님만큼이나 신비하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시간 세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들의 신성에 결함을 주고 결국 그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출생 관계는 영원적이라고 표현되어야 하며 아들의 영원 출생을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들의 참된 신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들에게 돌려지는 신적 명칭들은 그의 신성을 증거 한다. “그 이름은 (중략)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사 9:6)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딤후 2:13)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요일 5:20)

둘째, 그가 가지신 신적 속성들은 그의 신성을 증거 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골 2:9)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계 22:13)

셋째, 그가 행하시는 신적 사역들은 그의 신성을 증거 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4) 그 외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그러하다.

넷째, 그가 받으시는 신적 존영이 그의 신성을 증거 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

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 1:6)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2,13)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神性)은 이처럼 성경에 풍성히 증거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부정하는 초대교회 시대의 아리우스주의(Arianism)나 오늘날의 일위신론(一位神論, Unitarianism)이나 자유주의는 명백히 이단이다.

(3) 성령(聖靈, Holy Spirit)

제3위이신 성령은 성경에서 ‘영(靈)’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롬 8:9) 등으로 불린다. ‘영’(루아크 πνεύμα, 프뉴마 pneu'ma)은 바람같이, 호흡같이 일하시는 그의 사역의 양식을 나타낸다.

또 ‘성령’(聖靈)은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 그는 거룩하시며 거룩한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어린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계 5:6)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영원함같이 아버지와 성령의 관계도 영원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성령의 참된 신성에 근거한다.

이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므로 그의 영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성령의 참된 신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동일시되신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중략)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행 5:3,4)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행 28:25)

둘째, 성령께서 가지시는 신적 속성들은 그의 신성을 증거 한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 2:10) “영원하신 성령”(히 9:14)

셋째, 성령께서는 신적 사역을 하신다.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의 신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 1:2) “그 신(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교”(욥 26:13)

넷째,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

교회 역사상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단일신론, 소시너스주의, 일위신론, 여호와의 증인 등) 그들은 성령께서 인격적 하나님이심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며 성령의 신성은 그의 인격성을 내포한다. 더욱이 그의 인격성은 성경에서 그에게 사용된 인격적 명칭과 인격적 특성에서 확증된다.

첫째, 성령께서는 인격적 명칭으로 불리신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라고 말씀하셨다.(요 16:14) 영은 헬라어에서 중성명사이지만 여기 ‘그가’(ejkei'no)라는 말은 남성 지시대명사이다. 바울은 성령에 대해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라고 말했다.(엡 1:14) 여기서의 ‘이는’(oi')도 남성 관계대명사이다. 이 말들은 성령의 인격성을 증거 한다.

둘째, 성령께서는 인격적 특성들을 가지신다.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고 말씀하셨고 또 “그가 나를 증거 하실 것이요.”(요 15:26)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심을 증거 한다.(행 8:29, 10:19, 13:2) 사도행전 16:7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고 말한다.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롬 8:16)고 말했다고 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고 말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엡 4:30)고 교훈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실 뿐 아니라 ‘아들로부터

도’(filioque = and from the son) 나오신다는 사실에 대해 논쟁하였다. 이것은 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동방교회는 성령께서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혹은 ‘아들의 영’으로도 불리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는 근거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빌 1:19) 어린양의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령이시다.(계 5:6)

3. 세 인격 간의 상호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께서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시는가? 세 인격들은 신적 본체에 있어서 동일하고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지만 그 인격적 특성과 사역에 있어서 어떤 종속적 관계로 생각하기가 쉽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간의 논리적 순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며 아들께서는 아버지에게 속하시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신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항은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서 나지도 나오지도 않으시고, 아들께서는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성령께서는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성령을 보내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고(요 3:17), 또 성령에 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라고 표현하셨다.(요 15:26)

세 인격들은 사역들에 있어서도 구별되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낳으신다. 낳으시는 일은 성부만의 독특한 사역이시다. 아들께서는 낳

으심을 받을 뿐이다. 또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께서는 그들로부터 나오신다.

또한 세 인격들은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도 구별되신다. 아버지께서는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셨고, 아들께서는 2천여 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救贖)을 이루셨고, 성령께서는 그 구속을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하셔서 그 모두들을 실제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중생(重生)과 성화(聖化)는 주로 성령께 돌려진다.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삼위일체 교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집 전체를 지탱(支撐)하고 있는 기둥과 대들보처럼 기독교 체계의 중심과 같아서 신학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왜곡(歪曲)되거나 무시(無視) 된다면 속죄와 중생 같은 다른 중요한 교리들도 큰 손상을 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상은 역사상 항상 인간의 전적 부패성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부정하는 자력(自力) 구원사상과 함께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바로 세우고 지키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매우 신비하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적 진술은 하나님의 신비를 만족하게 설명하려는 시도라기보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예를 들어 단일신론, 양태론, 삼신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삼위일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하거나 삼위의 구별을 부정하는 오류이며 이것은 확실히 이단적이다. 박형룡 박사는 지혜롭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믿음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신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글쓴 이 / 김효성 목사